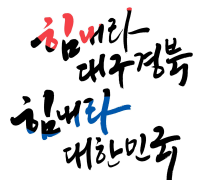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b>보 도 자 료</b>			
	<b>보도</b>	<b>2020.5.6.(수) 14:30부터</b>	<b>배포</b>	<b>2020.5.6.(수)</b>

<b>책 임 자</b>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02-2100-2830)	<b>담 당 자</b>	박 진 애 서기관 (02-2100-2831) 김 경 문 사무관 (02-2100-2824) 박 민 우 주무관 (02-2100-2874)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장 이 진 수(02-2100-1650)		윤 세 열 사무관 (02-2100-1651) 홍 재 선 사무관 (02-2100-1652)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진 선 영(02-2100-2920)		박 정 원 사무관 (02-2100-292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02-2100-2860)		김 종 식 사무관 (02-2100-2864)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02-2100-2950)		윤 현 철 사무관 (02-2100-2951)

## **제 목 :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경제방역을 책임지겠습니다.**

###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5.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참고1>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20.5.6.(수) 14:30 ~ 16:00 / 은행회관
- ◆ 참석: (정부) 금융위원장(주재), 산업부·고용부·기재부  
(5대 은행)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유관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 되었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강조하면서,
- 금융권이 경제방역 최전선의 소방수로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 다만, 그간의 금융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이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분야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① 먼저,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활성화 등과 함께
    -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②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4.29일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예정된 일정(5.18 접수, 5.25 심사)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③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4.29 기금설치 근거법률(산은법 개정) 및 기금채 정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 아울러,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경제가 아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 금융당국과 금융권, 유관기관,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한다면 머지 않아 터널의 끝과 빛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3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 2.7, 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대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원 실적을 종합

- (총 규모) 5.1일까지 총 89.0만건, 7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70.7만건, 40.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16.9만건, 34.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이자납입유예는 0.4만건, 0.7조원 지원되었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1.0만건, 1.6조원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19.2만건, 22%) - 소매업(15.1만건, 17%) - 도매업(10.2만건, 11%)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7만건 /43.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31.2만건 /33.8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금융위원회 대변인 <a href="mailto:prfsc@korea.kr">prfsc@korea.kr</a>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해외감염병 NOW
----------------------------------------------------------------------------------------------------------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① 금융리스크 대응반**

-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 (역할) 시장별(주식·채권 등), 업권별(은행·보험·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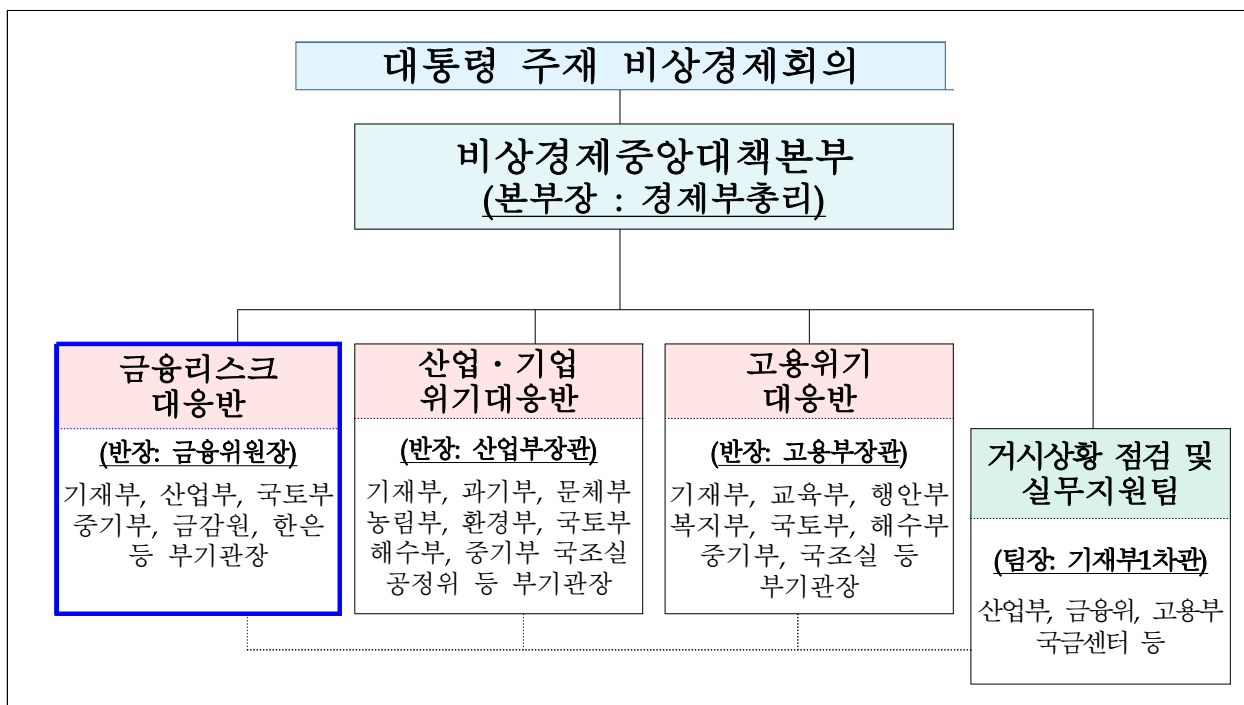
**②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 (역할) 주요업종 수출·생산현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③ 고용위기 대응반**

-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 (역할) 업종별·지위별·연령별·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 &lt;조직도&gt;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 총 70.7만건(40.3조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16.9만건(34.9조원) 지원

구분	신규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	기타 <sup>2)</sup>	합계
	대출	보증	대출 <sup>1)</sup>	보증			
건수	54.3만건	16.4만건	7.1만건	9.8만건	0.4만건	1.0만건	89.0만건
금액	32.7조원	7.6조원	26.0조원	8.9조원	0.7조원	1.6조원	77.4조원

1) 원금상환유예 포함, 2)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19.2만건, 22%) - 소매업(15.1만건, 17%) - 도매업(10.2만건, 11%) 順으로 지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 제조업	운수·창고업
19.2만건 6.4조원	15.1만건 6.3조원	10.2만건 9.4조원	4.3만건 11.4조원	3.9만건 2.4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3.5만건 1.8조원	2.1만건 4.7조원	1.4만건 2.3조원	0.7만건 3.7조원	28.4만건 29.2조원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7만건 /43.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31.2만건 /33.8조원을 지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규대출	29.6만건	17.1조원	24.7만건	15.6조원
신규보증	16.4만건	7.6조원	-	-
대출만기연장 <sup>1)</sup>	1.3만건	8.5조원	5.8만건	17.5조원
보증만기연장	9.8만건	8.9조원	-	-
이자납입유예	0.2만건	0.7조원	0.2만건	0.03조원
기타 <sup>2)</sup>	0.5만건	0.8조원	0.3만건	0.6조원
합계	57.7만건	43.6조원	31.2만건	33.8조원

1) 원금상환유예 포함, 2)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